♣ Interview ♣

"우리들이 과거에 행(行)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오늘 무엇을 실천(行)하였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케이피케미칼 울산1공장 생산3팀 강능중 기능장

케이피케미칼 울산1공장에 근무중인 강능중 기능장은 열관리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까페(http //cafe daum net/bcgb)의 운영자로 온·오프라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열관리인들의 위상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강능중 회원님의 간단한 약력과 현재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열관리사로 입문한것은 공고 화공과를 졸업하고 87년 신발공장에 다니면서 공부를하여 열관리기능사를 취득, 부산송도에 위치한 조그마한 호텔기관실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식용유,마가린 등을 만드는 유지공장, 우유공장 등을 거쳐 1995년도에 현재의 케이피케미칼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울산1공장은 석유화학단지내(內) 5만평부지에 세워진 석유화학회사로서 크게 PTA 공장(생산1,2팀,공무1팀)과 SSP 공장(생산3팀,공무2팀)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PET SSP Resin 생산에 필요한 열공급을 위하여 열매체보일러(550만Kcal/h, 750만Kcal/h, 1000만Kcal/h 각 2대)와 스팀보일러(10T/h,20T/h)를 운전, 보수,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강능중 회원님이 바라보시는 협회의 문제점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회원으로 가입 후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협회를 주시하고 있는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속담 중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 부활된 법정교육을 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열관리사로서 자축과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나타난 교육공문발송 등 미비한 문제점은 이미 협회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며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열관리사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회원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회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 강능중 회원님이 열관리인들에게 평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에너지사용은 얼마나 잘 이용하는냐를 지나서 국가간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유가시대에 봉착해 있고, 또 앞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선진 38개국은 대부분 1차감축 기간인 2012년까지 목표감축량을 달성하고 선진 개도국인 우리나라 등을 압박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면서도 중국, 인도와 달리 선진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9위입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도 보다 무려 2배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것입니다
국내 외적으로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는 상반되게 열관리사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만, 열에너지와 환경의 지킴이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열관리사의 직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열관리사하면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저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용역,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전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열관리사들의 안이한 생각과 스스로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열관리사라는 직업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을 헤아릴수도 없는 열관리사입니다 엄연히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47조1항 및 별표 11)이라는 법이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 법을 지키는 회사가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요
이제는 우리 열관리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모두가 열사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한목소리를 내어야만 우리들의 직업은 미래에도 보장 받을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이는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행(行)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오늘 무엇을 실천(行)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는 바뀔 것 입니다

4. 협회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법정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내외적 위상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우리 협회와 회원들, 그리고 전국의 열관리인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란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를 달성하고자 세부계획으로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극대응 하고자 여러 기술자단체에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설관리관련 동호회모임인 다음카페 보냉가설(http //cafe daum net/bcgb)을 모태로 한국보일러기능장회가 내년 1월중에 창립될 예정입니다 기능장회는 추락한 열관리사의 권익향상과 후배양성을 위해 협회와 공조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열관리사도 협회를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안이한 생각으로 방관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면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의 철폐(검사기기조종자업무대행기관 삭제, 에너지관리자의 유자격선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9조 개정으로 도급(용역), 비정규직 근로 금지의 법제화, 무적기기인 흡수식냉온수기를 검사대상기기로 편입, 검사대상기기의 무자격운전 개선노력으로 일자리창출, 상위자격자의 우대로 열관리사의 기술향상 유도 등입니다

열관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협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하나로 의견을 모우고 결집한다면 밑바닥으로 추락한 우리직업도 희망 있는 직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열관리사 선 후배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2004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5년에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